



THE CITY OF NEW YORK
OFFICE OF THE MAYOR
NEW YORK, NY 10007

2026년 2월 17일

즉시 배포용

연락처: Pressoffice@cityhall.nyc.gov

**조란 맘다니 시장이
시장실 산하 국제 업무국(Mayor'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및
이민자 서비스국(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국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실 산하 국제 업무국 국장 안나 마리아 아칠라(Ana María Archila)

시장실 산하 이민자 서비스국 국장 파이자 알리 (Faiza Ali)

뉴욕 - 오늘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시장실 산하 국제 업무 국장에 안나 마리아 아칠라, 이민자 서비스국 국장에 파이자 알리를 각각 임명하였습니다.

오랜기간 이민자 권리운동을 이끌고 전 뉴욕 근로자 가족당(New York Working Families Party, NYWFP)의 공동대표인 아칠라는 뉴욕시의 유엔 및 미국 국무부 사이에서 소통의 중심으로 일할 것입니다. 알리는 10년 넘게 뉴욕시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최근에는 전 의장의 지역사회 참여 담당 부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이제 시의 핵심 기관인 시장실 산하 이민자 서비스국을 이끌게 됩니다.

국제업무국장은 뉴욕시가 유엔, 국무부 및 광범위한 외교계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국제업무국의 수장으로서 아칠라는 시 기관에 외교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뉴욕을 방문하는 외교관을 맞이하며, 뉴욕시 청소년 대사단(NYC Junior Ambassadors)과 같은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시가 계속해서 글로벌 커뮤니티를 따뜻하게 반기는 안식처로 남아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는 항상 전세계의 도시였습니다. 이민자들이 함께 건설한 도시이며 우리의 다양한 언어와 이야기로 더욱 강해진 도시입니다. 저는 안나 마리아 아칠라와 함께 일하게 되고 그 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근로자

가족당에서의 리더십을 통해 일하는 뉴욕시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역시 그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는 운동을 이끌어왔습니다. 아칠라는 도덕적 명확성과 뉴욕시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헌신을 보여줍니다. 국제업무국장으로서, 아칠라는 우리 모두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도시에서 전세계가 계속 환영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은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칠라 국장은 “맘다니 시장의 혁신적인 행정부에 합류하고, 뉴욕시를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국제업무국에 도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뉴욕시는 외교관들이 모이는 곳이자 전 세계에서 온 수백만 명의 노동자 계층 뉴욕시민들의 집이며 수백 개의 국적과 언어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유엔과 5 개의 자치구 전역에서 국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이민자 권리와 경제적 정의 단체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평등, 기후 변화, 민주주의 후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외교 사절단, 정부 및 운동 단체들과의 강력한 관계 구축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남아공 미국 대사이자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특임 연구원인 패트릭 개스퍼드는 “외교란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 규모로 의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이며 이는 아칠라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칠라는 이민, 기후 변화,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 등 우리가 당면한 초국가적 과제에서 최전선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동맹이 위태로워지고 가치관이 훼손된 이 시기에,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를 위해 진전을 위한 공통 기반을 찾아낸 검증된 실적을 가진 리더를 수장으로 선택하는 고무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이민 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의 무라드 아와데 의장 겸 최고경영자는 “아칠라가 이민자 서비스국의 국장으로 임명된 것은 지역사회 요구와 시, 주, 연방 차원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정책을 연결하는 데 헌신해 온 그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비영리 단체 임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단체를 포함한 수많은 기관의 이사회 멤버로서 뉴욕시에서 20년 이상 노동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모든 뉴욕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아칠라보다 더 강력한 옹호자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이크 더 로드 NY(Make the Road NY) 공동 사무총장 호세 로페즈는 “아칠라가 국제업무국 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는 메이크 더 로드에서 기획자로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이민자, 노동자,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함께 20년 이상 함께 일해왔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여정을 함께한 구성원이 이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보니 무한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연방 정부가 계속해서 이민자들을 악당화하는 지금 그의 리더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가 이 도시를 활기차고 강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인공인 이주자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축하하는데 깊이 헌신하는 부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히스패닉 연맹(Hispanic Federation)의 프랭키 미란다 의장 겸 최고 경영자는 “아칠라의 국장 임명은 우리 커뮤니티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녀는 항상 용기와 이민자 및 노동자 가족에 대한 깊은 책임감으로 커뮤니티를 이끌어왔습니다. 아칠라는 우리의 세계적인 리더십이 국내에서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확고히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뉴욕의 목소리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나 마리아 아칠라 소개

안나 마리아 아칠라는 20년 넘게 뉴욕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이민자 권리 투쟁의 선두에 서 왔습니다. 그는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후 성인기 대부분은 뉴욕에서 보내며 메이크 더 로드 및 인민민주주의센터(Center for Popular Democracy) 등 여러 진보적 시민단체를 공동창립하고 이끌었습니다.

경력 전반에 걸쳐 아칠라는 이민 개혁, 유급 병가, 최저임금 인상, 뉴욕주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습니다. 2022년 뉴욕주 부지사 선거에 출마였고 첫 도전에서 213,210표를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뉴욕 근로자 가족당(NYWFP) 공동 디렉터를 역임하며 맘다니 시장 선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파이자 알리가 시장실 산하 이민자 서비스국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알리는 파키스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지역사회 조직 활동과 시 정부 업무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실 산하 이민자 서비스국은 뉴욕시가 이민자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시장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맘다니 시장은 “파이자 알리를 차기 국장으로 임명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민자의 딸인 파이자는 뉴욕에서 이민자의 삶을 정의하는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10년 이상의 지역사회 참여 및 시 정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민자 권리와 서비스 증진에 있어 입증된 리더십을 보여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민자 출신 뉴욕 시민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공격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지금, 본 행정부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지킬 것입니다.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시가 이민자들을 말로만 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보호하고 실천으로 지원하며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을 가지고 살며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장에 임명된 **파이자 알리**는 “저는 용기와 흔들림 없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곳에서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결의를 품고 뉴욕시로 이주해 온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 가정의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이 도시는 우리 이전 세대의 이민자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와 안정, 그리고 뿌리를 내릴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장실 산하 이민자 서비스국 국장으로 일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뉴욕시는 단순히 이민자들의 고향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우리의 이웃, 경제, 문화, 미래는 안전과 기회를 찾아 이곳에 온 이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국장으로서 저는 언제 도착했든, 어디서 태어났든 모든 뉴욕시민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며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전념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위원회 의장인 **엘시 엔카르나시온** 시의원은 “지난 3년간 파이자 위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지적이고 배려심이 깊으며 이 일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경험과 추진력, 헌신을 바탕으로 국장으로서 우리 모두의 든든한 동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그녀가 MOIA 팀을 이끌 능력에 대해 진심으로 낙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이민 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의 무라드 아와데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파이자 N. 알리의 MOIA 국장 임명은 이민자 뉴욕시민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일”이라며 “그는 브루클린의

이민자 가정과 동네에서 자란 토박이 뉴욕시민으로서 우리 커뮤니티의 필요와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력을 통해 모든 신앙과 문화를 가진 근면한 뉴욕시민들에게 기회와 서비스를 연결해 주며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동시에 모든 가족이 번영할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 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맘다니 시장이 알리를 임명한 것에 고무되었으며, 현재와 미래에 걸쳐 모든 이민자 뉴욕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그녀와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메이크 더 로드 뉴욕(Make the Road NY)의 나탈리아 아리스티자발 차기 공동사무총장은 “파이자 알리 국장의 임명을 축하합니다. 파이자는 이 중요한 직책에 공직자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그를 통한 뉴욕시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그들이 직면한 복잡한 도전 과제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를 접목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모든 이민자 뉴욕시민을 위한 강력한 대변인이 될 것이며,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데 확고히 맞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 콜미나(La Colmena)의 임시 사무총장 알레트 케피다는 “우리는 파이자 알리를 우리의 차기 국장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이자는 스타튼 아일랜드 이민자 공동체의 오랜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똑똑하고 원칙을 지키며 체계적인, 스타튼 아일랜드를 비롯한 모든 이민자 가족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줄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고 조력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아랍계 미국인 협회(Arab American Association of New York) 마르와 자니니 사무총장은 “파이자는 수년간 AAANY 커뮤니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협회의 옹호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디렉터로서 이민 개혁 노력을 포함한 여러 캠페인을 주도하며 뉴욕시 전역 수천 명의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파이자의 정책과 현장에 대한 경험 및 이해는 그를 이 역할에 완벽하게 부합하도록 합니다. AAANY는 그녀가 MOIA 국장으로서 뉴욕시 이민자 공동체의 옹호자이자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시 정의 센터(Urban Justice Center) 길거리 상인 프로젝트(Street Vendor Project)의 디렉터 모하메드 아피아는 “파이자 알리가 시장실 산하 이민자 서비스국의 국장으로 임명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파이자의 풍부한 정부 경험,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탁월한 헌신, 그리고 이민자 소상공인들이 번성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그가 이 직책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이자 알리 소개

파이자 알리는 뉴욕시의회에서 10년 이상 지역사회 참여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지역사회 연계 담당관으로 근무한 후 지역사회 참여부서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시의회 합류 전에는 뉴욕 아랍계 미국인 협회의 옹호 및 시민 참여 담당 이사를 역임했으며 뉴욕 무슬림 민주당 클럽(Muslim Democratic Club of New York)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또한 뉴욕 아랍계 미국인 협회의 옹호 담당 이사, 브루클린 교구 연합의 조직자, CAIR-NY의 지역사회 담당 이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알리는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 두 개의 무슬림 명절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으며, 이민 개혁과 언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최근에는 뉴욕시의회 수석 부비서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국장으로서 알리는, 비영어권 뉴욕시민들이 뉴욕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혜택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5 개 자치구 전역의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